

여성 심질환의 현황 및 중요성

여성과 남성은 심장질환 발생 시 호소하는 증상이 다를 수 있으며, 폐경 이후의 여성에서 심장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여성 심장질환이 남성보다 더 무서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

김형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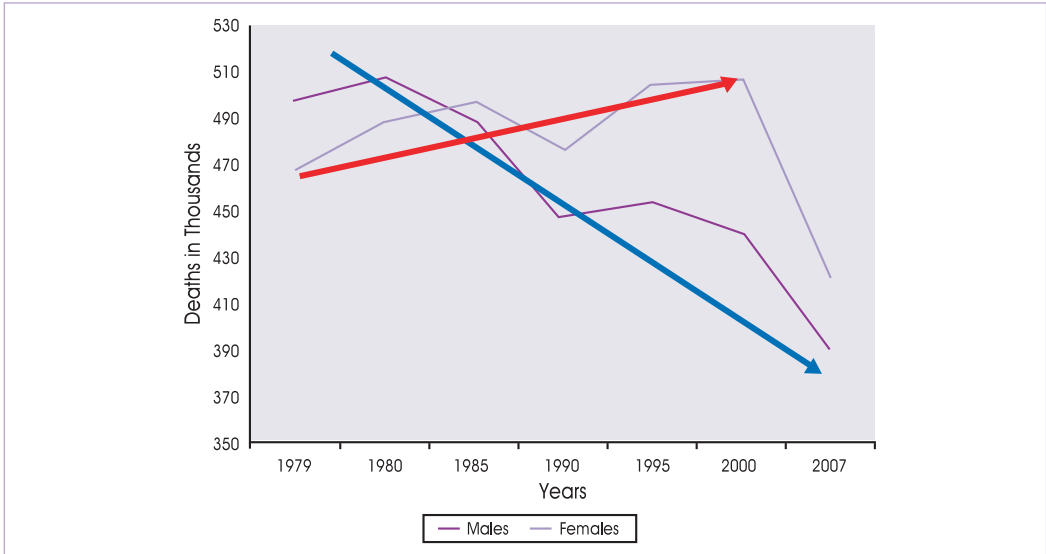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여성 심질환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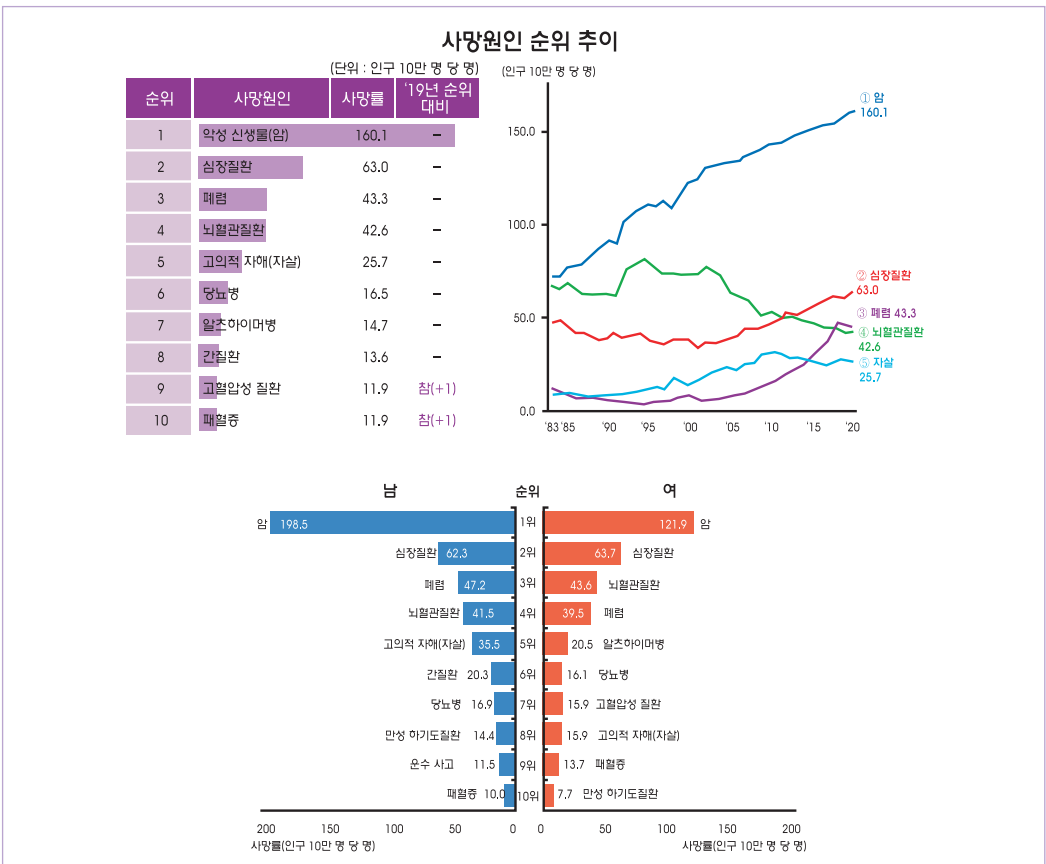
미국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에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고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암이 사망률 1위 질환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심장질환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심장질환 사망률을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미국 통계청 자료를 남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심장질환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에서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2000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같은 심장질환이지만 성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 심장질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및 연구가 중요한 실정이다.

국내 여성 심장질환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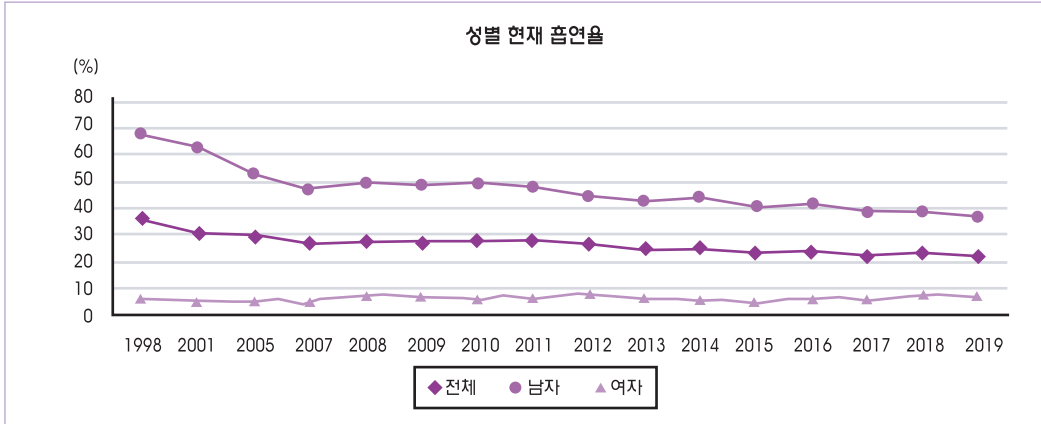
국내 2020년 사망률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악성 신생물 다음으로 심장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 나누면 인구 10만 명 당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국내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남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병이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여성에서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이는 여성들이 심장질환을 제대로 진단받고 제시간에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유전자, 성



<그림 1> 파란색 화살표는 남성, 빨간색 화살표는 여성의 심장질환 사망수



<그림 2> 국내의 전체 및 성별에 따른 사망률을 나타낸 통계청 자료



<그림 3> 성별 현재 흡연율,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그림 4> 연령에 따른 대사중후군 유병률

호르몬, 사회 문화적 행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장질환 관련 연구들은 남성을 위주로 시행되어 있다. 특히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최근 논문들에 의하면 병태생리조차도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심장질환의 증상을 다채롭게 호소하고 전형적인 협심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의료진은 특히 폐경 후의 여성들을 진찰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그림 4). 결론적으로 여성 심장질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는 심혈관질환이 발

생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편견을 버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결론

지금까지 여성 심장질환의 현황 및 중요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다. 이번 주제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첫째, 1970~2000년대에 남성의 심장질환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여성의 심장질환 사망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여성 심장질환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둘째 여성과 남성은 심장질환 발생 시 호소하는 증상이 다를 수 있으며, 셋째 폐경 이후의 여성에서 심장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여성 심장질환이 남성보다 더 무서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References

1.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Heart Disease and Stroke Statistics—2011 Update. *Circulation* 11:123(4):e18–209.
2.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of chest pain in 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 results from the Korean Women's Chest Pain Registry. *Korean J Intern Med* 2020;35:582–92. *Korean J Intern Med*, 2019 Mar 19. doi: 10.3904/kjim.2018.320.
3. Metabolic syndrome epidemic among Korean adults: Korean survey of Cardiometabolic Syndrome Atherosclerosis 2018;277:47–52.